

工團으로 위축된 蔚山지역 水産業의 活力素로 建設된 方魚津港

困惑스러웠던 潛嫂와의紛爭

閔 炳 烈 <林光土建(株)·常務理事>

■ '81년부터 本格 개발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 놓고 봤을 때 마치 등뼈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의 끝부분이 반도를 이루며 동해로 가라앉은 곳 - 이곳이 방어진이다.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자리잡은 방어진항은 울산시로 편입되면서 동(洞)단위 어항으로 전략(?)했으나 1962년까지만 해도 울산군 방어진읍으로 이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심거점 어항이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정이 급변했다. 우리나라 제일의 신흥 중화학공업도시로 또는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로 울산 전역이 탈바꿈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기세에 눌려 수산업은 어쩔 수 없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방어진항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주변 어항들이 하나씩, 둘씩, 공단지역으로 흡수되자 한동안 쇠락의 기미가 역력했다. 이런 방어진항에 아연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1971년 수산청 제1종 어항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부터였다.

공단으로 인해 위축된 수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선 최소한 울산지역의 몇개 어항만이라도 특성을 살려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방어진항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된 것이 1979년, 이어 이듬해인 1980년에 기본시설계획이 확정되고 1981년에 지질조사가 끝나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방어진항의 개발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원활한 어획물 양륙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방어진항을 개발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목적에 따라 마련된 방어진항 개발계획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두 146억 8,700만원을 들여 남방과제 축조 420m, 북방과제 축조 250m, 물양장 건설 1,088.6m와 파제제 270m를 건설하는 것 등이다.

■ 民願解決에 어려움

방어진항 뿐만아니라 경남 거제의 능포항 등 어항건설공사만 전문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우리 임광토건(주)이 지금까지 어항건설을 위해 견지해온 자세는 오직 한가지였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어민 모두가 매일매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번영과 발전을 위한 어항을 만들자 -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방어진항이 갖는 어항으로서의 중요성은 인근에 어엿한 어항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 대부분 어선의 집결항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방어진항에서 해상으로 5km밖에 안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전하항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전하항은 제2종 어항으로 대규모 어선을 수용하기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해상으로 9km 정도 떨어진 울산항은 규모는 비교적 크나 항만청 1종항으로 수산업 쪽 보다는 중화학공업쪽에 이용의 비중을 두는 산업항이라서 어선의 이용에 불편이 뒤따랐다.

결국 악천후나 수산물의 양륙을 위해 어선을 제대로 수용

할 수 있는 어항은 수산청 제1종 어항인 울주군의 정자항이나, 아니면 이곳 방어진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선어선수와 외래어선 집결수를 보면 방어진항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곳 방어진항의 지선어선수는 모두 350여척 - 여기에 하루 평균 5척 이상, 많을 때 70척이 넘는 외래어선이 몰려드니 방어진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그동안 10년에 걸친 개발로 인하여 항세가 점차 안정되고, 기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어선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어쨌든 방어진항을 이렇게 어엿한 어항으로까지 개발해 오는 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재난이라든가 해마다 정례적으로 맞는 태풍·해일 등은 오히려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곤란이었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겪은 곤란은 이러한 자연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물리적인 힘에 의한 공사의 중단이었다.

방어진항 부근은 비교적 지형적인 조건이 양호해 수산물이 풍부한 편이다.

이런 탓으로 이 지역엔 잠수해녀들의 작업이 활발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어항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재와 석

재를 실은 빠지선이 아무래도 이곳 주위를 빈번히 들락거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로 인하여 해녀들이 작업에 지장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있는터가 아니어서 가능하면 자재선의 운송을 해녀들의 작업시간과 피해서 실시하고, 작업기간도 힘 닿는 한 단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한동안 크나큰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해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공사가 잠시 중단

되는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아마도 방어진항 건설을 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기술적인 그런 문제보다 이러한 해녀들과의 분쟁이었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까.

사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방어진항 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대부분 어항건설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어항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서로간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 地域發展에 크게 寄與

앞서 잠시 말했던 경남 거제의 능포항은 우리 회사가 1968년부터 무려 21년에 걸쳐 어항공사를 한 탓인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노골적인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비협조적이었으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마주칠 때마다 웃는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민들 자신이 먼저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던 아름답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모든 어항공사가 이럴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어쨌든 해녀여러분과 분쟁은 있었지만 올해의 공사물량은 물양장 축조 437m와 상부 249m, 그리고 남방파제 아래쪽

두부보강공사 1식 등으로 모두 11억 3,5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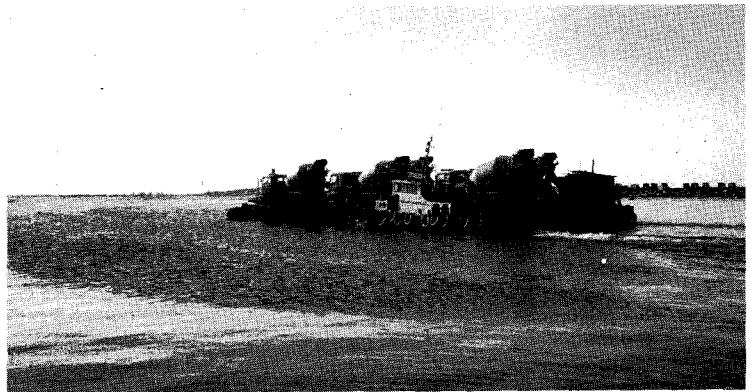
한때 전국을 휩쓴 장마와 뒤늦게 몰아닥친 태풍, 그리고 분쟁 등으로 약간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예정된 공사진척도를 보여 올해분 공사의 준공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방어진항 건설 가운데 남은 물량은 남방파제 보강 1식과 북방파제 보강 1식, 그리고 물양장 149.7m 정도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방과

입되는 주요 어종은 명태, 가자미, 문어, 오징어, 기타 잡어 등으로 연간 약 1만900톤의 어획량에 110억원 가량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그렇지만 방어진항 개발이 끝나면 한내면적 28만 6,000m², 정온수면적 19만 3,000m²로 10톤급 어선 526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관내어선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외래어선까지 적극



제, 파제제, 물양장 공사는 대부분 끝난 셈이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공사의 마무리 작업만 남게 되었다.

말로만 부르짖어오던 방어진항의 기본시설이 이로써 완공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공사도 앞으로 몇년의 공기는 더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방어진항의 전체적인 위용이 완전히 드러나 뿌듯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어진항의 모습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현재 방어진항에 반

유치할 수 있어 양륙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어진항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져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어민과 시공업자의 틈바구니에 끼여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주신 수산청 감독관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남은 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작정임을 약속한다. ㉠